

동구 구도심서 '전통혼례 동네잔치' 열린다

내일 푸른길 일대서 전통혼례
함진아비·옛장수·떡장수에
제기차기·웃놀이 등 전통놀이
골목상권 살리기 상품권도 발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 잔치가 광주 구도심에서 열린다. 전통혼례식을 중심으로, 함진아비·옛장수·떡장수 등의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제기차기, 투호놀이, 웃놀이 등 전통놀이도 시행된다. '동구푸른길마을축제추진단'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동구주민들과 함께하는

'혼례 큰 잔치'를 펼친다. 이번 축제는 '전통혼례식'을 통해 서로 음식을 나누고 여흥을 즐기던 '옛 동네 큰 잔치의 기억'을 마을축제로 재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골목상권활성화, 우리 동네 살리기 등의 의미도 실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인시장 등 주변 시설들과 연계해 구도심 활력 재생에도 나설 예정이다. 추진단은 매년 주기적으로 축제를 열기 위해 주민과 상인, 행정기관, 지역단체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가 주민과 상인을 결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이후 주민, 시민단체, 상인회, 자치위원회, 행정기관과도

결합해 추진단을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이날 축제에는 처녀 총각으로 만난 동구 주민인 신부 김민선씨와 신랑 이주황씨가 전통혼례식을 올린다. 푸른길에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그 길을 따라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입장을 한다. 혼례식에 함진아비·옛장수·떡장수 퍼포먼스가 함께 하고, 제기차기, 투호놀이, 웃놀이 등 전통놀이가 흥을 돋운다. ▲삼고무 ▲난타 ▲통기타 공연 ▲청소년방탈소년단댄스 ▲퓨전 국악공연 등 다양한 공연들과 공예품만들기, 한과체험, 한복체험, 캔들 만들기 등 가족나들이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추진단은 또 골목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우리동네상품권을 발행한다. 상가들이 마을축제추진단에 우리동네 상품권으로 협찬하고, 축제관람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품당첨자가 상품권을 협찬한 상가를 직접 방문해 상품권을 소비하도록 했다. 동구청은 교통통제와 자원봉사자, 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 포스터 게재 등을 맡았다. 이번 축제는 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고 동구푸른길마을축제추진단이 주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시민자문위 회의 발전방향 모색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달 31일 광주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이용시민자문 위원회'를 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확충과 공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민자문위원회(위원장 정봉현)에 참석한 10명의 전문가들은 용산 차량기지 현장에서 운영 현황을 안내 받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함께 했다.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와 관련한 대응 방안과 공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활성화 방안 등으로의 공사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주민자치박람회 경진대회 북구 17회 연속 수상 영예

광주시 북구는 1일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제도정책 등 4개 분야에서 총 7개 사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국 395개 참가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73개 사례가 주민자치 향연을 펼친 이번 박람회에서 북구는 참여와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01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원년부터 올해까지 17회 연속 수상이다.

먼저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 입동의 '공동체, 환경, 활력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야구마을', 중흥2동의 '복다복다 사람냄새 나는 간헐골 마을 만들기', 매곡동의 '다함께 만들어가는 행복1번지! 대화골 주민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해 나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자치 분야로 참가한 두암2동의 '이웃 소통 공동체 만들기', 삼각동 '주민과 함께 자치를 이끌고 꿈을 모으다(會)'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새로운 마을 의제를 발굴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생활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찾아가는 시민동물교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1일 광산구청에인 복지관에서 2018년 하반기 '찾아가는 시민동물교실'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시민동물교실'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2014년부터 광산구청에인 복지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에서 지켜야할 반려동물 에티켓, 동물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반려동물 1대1 건강검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자체 혁신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취임한 노경수 사장은 이날 "경영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의 경영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사 임직원들은 '변화 혁신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 및 발표 등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형 도시재생 추진방안, 청렴도 경쟁력 강화 방안, 합리적인 조직 구성 등이 주요 주제가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영 혁신으로 지속 성장 기반 마련하자" 광주도시공사 워크숍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4일간 담양 성암국제수련원에서 임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혁신을 통해 공사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혁신 변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선 7기를 맞아 광주시가 추진 중인 시장혁신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자체 혁신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취임한 노경수 사장은 이날 "경영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의 경영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사 임직원들은 '변화 혁신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 및 발표 등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형 도시재생 추진방안, 청렴도 경쟁력 강화 방안, 합리적인 조직 구성 등이 주요 주제가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방송통신전파진흥원 3·17일 '이그나이트 전파' 행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은 1일 "2018 전파콘텐츠포럼 중 하나인 '이그나이트 전파'를 오는 3일, 17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그나이트란 '불을 붙이다·점화하다'(ignite)란 의미이며, 20장의 슬라이드를 15초씩 자동으로 넘기며 총 5분간 자신의

경험과 스토리를 나누는 행사다. 광주에서는 '우리의 불안을 말한다' 'Reset, my life!' 등의 주제로 2012년부터 8년 연속 개최됐다. 올해 '이그나이트 전파'는 3일 예선(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과 17일 본선(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을 거쳐 2018 전파엑

스포 기간 중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심사는 사전 선호도조사, 심사위원 평가, 청중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진행되며 청중평가단은 이그나이트 홈페이지(ignitekwangju.org)접수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본 대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퍼실리티데이터연합회와 협동조합 토론엔리처가 주관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중유학생 광주도시철도공사 견학

광주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찾아 선진 교통시스템을 견학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는 1일 "호남대 항공서비스학과 소속 중국 유학생 특별 견학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선진화된 대중교통 시스템 소개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광주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소속 중국 유학생 10여명을 초청, 특별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중국인 차량내 안전시설 설명, 수동운전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광주도시철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호 사장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광주지하철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셨으면 한다"면서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광주도시철도가 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내달까지 두달간 렌터카 영업소 지도점검

광주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치구 및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렌터카 사업자와 관의 렌터카 사업자의 영업소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영업소 시설기준, 차량초과 여부,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렌터카 사고처리 분쟁 등 소비자불편 민원발생 최소화 ▲운전자의 운전면허정지 등 부적격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여부 ▲영업소 등록조 건 이행 여부 ▲무등록업체 불법 영업행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렌터카 종합보험 가입여부, 대여약관,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행정지도하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무등록 영업행위는 고발 조치한다. 현재 광주에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사업자는 총 62개사 7500여 대이며, 관외 렌터카사업자의 영업소는 21개사, 2000여 대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일로 월암리, 전원주택부지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10M 도로접
 -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 최고(40채 가능)
 - ✓ 남악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남악신도시 방향 4차선 도로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 ✓ 급매 - 30억(일시불)
- 문의. 010-6834-7400